



즉시 배포용: 2021년 9월 16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주로 온 아프간 난민 환영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의 새 지침에 따르면, 최대 1,143명의 아프간 난민이 향후 6개월간 뉴욕주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시사

올버니, 버팔로, 뉴욕시, 로체스터, 시라큐스 및 유틀카에 있는 지방 기관들이 난민들의 재건을 돕기 위한 서비스 제공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아프간 난민들이 앞으로 몇 개월간 뉴욕 지역사회에서 재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환영하며,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에 주 지원 재정착 기관을 통해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아프간 난민 수용 및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주정부에 올 여름 아프간 국적 난민 1,143명이 향후 몇 개월간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재정착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폭력과 박해를 피해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온 사람들을 맞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는 아프간 난민들의 새로운 삶을 도와줌으로써 자랑스러운 전통을 오늘날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국을 탈출하여 떠나온 사람들의 가슴아픈 모습과 이야기들이 뉴욕주가 기꺼이 응답해야 한다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아프간 친구들을 두팔 벌려 환영하고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미 도착해 있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아프간 난민들은 지금부터 3월 31일 사이에 새로운 지역사회로 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버니에 100명, 버팔로에 335명, 뉴욕시 지역에 240명, 로체스터에 200명, 시라큐스에 248명, 유틀카에 20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번 주를 주 전역에서 환영 주간으로 지정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이민자와 난민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이 주는 시민으로서의 기여를 받아들여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여기](#)에서 선언문을 볼 수 있습니다.

뉴욕에 들어오는 난민들은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산하 난민 서비스국(Bureau of Refugee Services)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기관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기관들은 국외 또는 국내 다른 곳에서 특정

이민자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뉴욕주로 들어온 난민들과 기타 비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OTDA의 Mike Hei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로 들어오는 아프간 사람들이 견딘 공포와 고난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우리 지역사회로 맞아주고, 그들이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며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뉴욕주에서 다양한 문화의 일부가 되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주 주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State)의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에서는 신분에 상관 없이 모든 이민자와 난민들에게 다양한 무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와 인력 개발, 정신 건강, 영어 학습 및 법률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Rossana Rosado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전 세계에서 오는 이민자와 난민들에게 등대 역할을 하며 안전과 기회를 찾아 온 아프간 난민들을 환영할 것입니다.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은 아프간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자원을 연결해주어 그들이 성공하여 앰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들어오는 아프간 난민들은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로 미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재량으로 입국허가를 승인했습니다. 난민과 특별 이민 비자로 입국한 사람들과 별도로 이 사람들은 망명 또는 더 영구적인 이민 신분을 구하는 일시적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뉴욕주에는 현재 약 7,500명의 아프간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인도주의 난민, 특별 이민 비자 수령자 및 난민들이 들어오면 그 수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인구난민이주국(State Department's 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은 2020년 9월에 처음으로 뉴욕이 내년에 최대 980명의 난민과 340명의 특별 이민 비자 소지자를 받아들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취임한 후, 아프간인들의 입국이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주의 난민 서비스국은 재정착 지원 기관들과 연계하여 들어오는 아프간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방 공무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주자 지원국은 이민자와 난민들을 주 전체의 무료 서비스에 연결해주는 핫라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핫라인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8시 중에 1-800-566-7636으로 연락하시면 200여 개의 언어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